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tvN 新드라마 찾아온다

무법변호사vs어바웃 타임vs김비서 다양한 소재·영화적 재미까지 갖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 2018년 중반기 이태원극장, 다양한 소재와 영화적 재미까지 갖춘 드라마 3편이 눈길을 끈다.

김진민 감독과 이준기의 11년만의 특급 재회와 이해영-최민수의 배우 인생 가장 강렬한 파격 변신으로 시청자들에게 심장 떨리는 흥분을 선사할 거약소탕 법정황극 무법변호사와 운명구원 로맨스 '범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 퇴사발탕 로맨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 주인공이다.

12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새 토일 드라마 '무법변호사' (김진민 연출/윤현호 극본/tvN, 스튜디오드래곤 기획/로그스필름 제작)는 법 대신 주먹을 쓰던 무법(無法)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무법(武法) 변호사로 성장해가는 거약소탕 법정황극.

'무법변호사'는 김진민 감독이 지난 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내 연

출력의 끝을 보게 될 작품"이라고 말한 것처럼 강렬한 무법 액션을 동반한 스타일리시하고 무게감 있는 연출로 시청자들을 유쾌 상쾌 통쾌한 무법 세계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 '변호인', '공조'로 이룬 2천만 관객 신화와 함께 자신의 첫 드라마 '리멤버 - 아들의 전쟁'을 통해 보여준 탄탄한 필력으로 믿고 보는 작가 반열에 오른 윤현호 작가와의 만남으로 주목 받는다.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갈 이준기-서예지의 공주와 학의 죽 이해영-최민수와의 강렬한 대립이 선사하는 카타르시스가 거약소탕 법정황극의 참 재미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진민 감독이 "꿈의 캐스팅을 이뤘다"고 말할 만큼 브라운관 가득 배운 배우들의 존재감과 열연이 1화부터 시청자들을 압도할 예정이다. 이준기는 법과 주먹을 겸비한 조폭 출신 변호사 '봉상필' 역으로 타고난 안변과 주먹을 가진 무법변호사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 서예지는 들끓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는 팔룡변호사 '하재이' 역을 맡아 아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당찬 매력으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지키는 걸크러시 면모를 드러낼 예정이다.



고결한 성녀의 얼굴 속에 탐욕을 감춘 기성지배 집단 '차문숙' 역을 맡아 악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민수는 어시장 강박에서 제벌 회장까지 올라온 야망의 남자 '안오주' 역을 맡아 피도 눈물도 없는 극악무도 악행의 절정을 선보이는 등 배우의 카리스마를 총 집대성한 리얼 연기

의 향연으로 시청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새 월화드라마 '범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은 수명시계를 보는 능력을 지닌 여자 최미카(이성경 분)와 악연인지 인연인지 모를 운명에 엮인 남자 이도하(이상윤 분)가 만나 사랑만이 구할 수 있는 미법 같은 순간을 담은 운명구원 로맨스

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재력, 얼굴, 수만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자기애로 팽팽 봉진 '나르시스트 부회장' 이영준(박서준 분)과 그를 완벽하게 보좌해온 '비서' 레전드 김미소(박민영 분)의 퇴사발탕로맨스. 박서준이 독보적인 진장스러움으로 로코 남신의 위엄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심공을 유발할 예정인 가운데 박민영의 첫 로맨틱 코미디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핑퐁계임을 하는 듯한 두 사람의 투박캐릭터가 어떻게 그려질지 벌써부터 인방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 6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한편 2018년 중반기를 빛낼 대박 조짐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tvN '무법변호사'는 '리브' 후속으로 5월 12일 첫 방송한다

스 이도하와 최미카가 그려내는 특별한 사랑 속 이들의 눈부신 순간이 멈춰버릴 바라는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할 예정이다. 특히 타인의 남아있는 수명을 볼 수 있는 '수명시계'라는 신선한 소재를 통해 시청자들을 색다른 감성의 세계로 안내할 전망이다. 5월 21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새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재력, 얼굴, 수만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자기애로 팽팽 봉진 '나르시스트 부회장' 이영준(박서준 분)과 그를 완벽하게 보좌해온 '비서' 레전드 김미소(박민영 분)의 퇴사발탕로맨스. 박서준이 독보적인 진장스러움으로 로코 남신의 위엄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심공을 유발할 예정인 가운데 박민영의 첫 로맨틱 코미디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핑퐁계임을 하는 듯한 두 사람의 투박캐릭터가 어떻게 그려질지 벌써부터 인방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 6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한편 2018년 중반기를 빛낼 대박 조짐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tvN '무법변호사'는 '리브' 후속으로 5월 12일 첫 방송한다

슈주·레드벨벳·워너원 등..6월 뉴욕 KCON 라인업 확정



뉴욕 KCON(케이콘) 무대에 오를 10팀의 막강 라인업이 확정됐다. 종합 콘텐츠 기업 CJ E&M은 현지 시간으로 6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미국 뉴욕 프루덴셜 센터에서 개최하는 KCON(케이콘) 2018 NY에

EXID, 프로미스나인, 골든차일드, 헤이즈, NCT 127, 펜타곤, 레드벨벳, 스트레이키즈, 슈퍼주니어, 워너원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올해 데뷔한 신인부터 14년 차 케이팝 스타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이 눈길을 끈다.

10팀 중 9팀이 뉴욕에서 개최되는 KCON 첫 방문이다 케이팝을 사랑하는 뉴욕 팬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KCON 2018 NY에는 화려한 콘서트 무대 외에도 아티스트 미니 라이브 및 토크쇼 등 다양한 컨셉션 콘텐츠가 신선했다 아티스트와 팬들의 접점 확대는 물론, 한층 풍성하고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Day 1. 헤이즈, 펜타곤, 레드벨벳, 스트레이키즈, 슈퍼주니어

최근 중남미 투어를 성황리에 마

친 데뷔 14년차 케이팝 아티스트 슈퍼주니어가 KCON 2018 NY의 첫 번째 날을 밝힌다. 트랜드하고 감각적인 음악으로 사랑 받으며 지난해 2017 MAMA에서 '베스트 힙합어반 뮤직상'과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여자 솔로' 2관왕에 오른 싱어송라이터 헤이즈와 '아이스크림 케이크', 'Dumb Dumb', '러시안 룰렛', '빨간 맛', 'Rookie', '피카부', 'Bad Boy' 등을 연달아 히트 시키고, 2017 MAMA에서 '베스트 여자 그룹' 상을 수상한 레드벨벳도 첫 날 출연을 확정했다.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로 앨범을 내 작곡가로 불리며 차근차근 성장해나가고 있는 펜타곤, '디스트릭트' 뮤직비디오로 공개 24시간 만에 400만 뷰 이상이라는 케이팝 데뷔곡 기준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한 기대주 스트레이키즈가 선배들과 KCON 2018 NY의 첫 날을 함께 한다.

#Day 2. EXID, 프로미스나인, 골든차일드, NCT 127, 워너원

앞서 KCON 2018 NY 첫 번째 라인업으로 공개된 대세 워너원과 최근 북고풍 감성의 뉴잭스윙 장르 '내일해'로 컴백, 자신들의 확고한 콘셉트와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EXID는 둘째 날 무대를 장식한다. 차세대 케이팝 대표주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NCT 127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뉴욕을 찾는다. 초대형 프로젝트 NCT 2018의 서울 기반 활동 유닛으로서 자신들의 세계관을 뉴욕 팬들 앞에 펼쳐낼 예정이다. 미국 음악전문 매체 '빌보드' 선정 '2017 K-POP 신인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리는 등 국내외에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골든차일드와 '2017 MAMA in Japan'에서 프리 데뷔 싱글을 선보인 후 2018년 공식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주목 받는 신예 프로미스나인 역시 KCON 2018 NY의 두 번째 날 뉴욕 팬들을 만난다.

한편, KCON은 CJ E&M이 2012년부터 해수로 7년째 개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K라이프스타일 축제다. 특히 신인 및 중소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에게는 세계 각지의 팬들과 접점을 형성하고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K-POP 콘서트를 비롯해 드라마, 영화, 뷰티, 패션, 음식 등 한국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해외 팬들에게 전파해 온 KCON은 북미,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현재까지 총 63만 명 이상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지난 4월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 LA 등지에서 한류의 열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프로듀스48' 6월 15일 첫 방송 확정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48'이 오는 6월 베일을 벗는다. 엠넷 관계자는 10일 오전 마이테 일리에 "'프로듀스48'이 6월 15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며 "방영 중인 '브레이크스' 후속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듀스48'은 아키토모 야스시의 탁월한 프로듀싱 능력의 산물인

그룹 AKB48과 Mnet의 대표적인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스템을 결합한 초대형 프로젝트 배우 장근석, 가수 보아에 이어 이승기가 국민 프로듀서 대표로 나선다.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AKB48의 멤버를 포함,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획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아 온 '프로듀스48'의 총 98명 출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듀스101' 출신 그룹 워너원의 강다니엘과 아이오아이 출신 전소미가 출연을 예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로맨스 패키지' 제2의 '짝'을 넘어설 수 있을까

'로맨스 패키지'가 제2의 '짝'을 넘어설 수 있을까. 설날 연휴 파일럿으로 훈훈한 외모와 스펙을 가진 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로맨스 패키지'가 지난 2일부터 정규편성됐다. '싱글 와이프' 후속으로 방송되는 '로맨스 패키지'는 '호캉스(호텔비행스)'와 연애를 접목시킨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다. 파일럿 당시 4% 후반~5% 초반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막상 정규편성된 후에는 2%대 시청률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청률이 모든 지표가 될 수 없고 화제성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높았던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나름의 선전을 보이는 '로맨스 패키지'이지만 특히 최근 상승장주 중인 채널A '하트시그널'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더 크다. 현재 '하트시그널'은 TV 화제성 조사 전문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TV 화제성 보고서에 따르면 4주 연속 비드라마 부문에서 연속 1위에 올랐다. 또 최근에는 미

국 DramaFever, 일본 TBS Dign와 판매 계약 소식을 알리며 해외에서의 인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트시그널'이 방송에 앞서 이미 한달이라는 장기간 합숙과 촬영 과정을 미리 마치는 등 외적 개입을 최소화하며 진정성에 힘을 실어주고 차별성에도 나선 반면 '로맨스 패키지'는 이미 SBS에서 방송된 '짝'을 연상되며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트시그널'이 감정선을 꾸준히 이어가며 MC들의 심리적인 추리 요소까지 더해지며 공감대 형

성에 나서고 있지만 '로맨스 패키지'는 MC의 등장과 호환이라는 장 소만 변했을 뿐 '짝'과 발반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연예인 혹은 연예인 가족들의 관찰 예능이 늘어난 가운데 일반인이 등장하는 예능은 그 자체로 신선함을 주고 있다. 또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연애, 데이트 프로그램이라는 포맷 자체가 가진 즐거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단순히 일반인의 등장으로만 차별화를 주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예능에 대한 위험성도 높은 가운데 '짝'을 넘어 양방 극장에 로맨스 버림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모인다.

오늘의 순세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음력 3월 26일)



▶**경조** ▶쥐띠 1, 3, 6월생 항상 겸손하고, 늘 남의 처지를 이해해주면 만사가 길하다. 최선을 다하나 분주하긴 할 뿐 만족감을 얻지 못 하니 마음이 불안하다. 북쪽에서 도움 줄 자 나타나니 과감히 손 벌리라.



▶**사계**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말고 겉대로 믿고 나가면 기대 이상 성과가 따를 듯하다. 기회를 포착하라. 행운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계속 노력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겠다. 4, 8, 9월생 현재는 마음의 안정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건강을 챙기라.



▶**음양** ▶이 번거롭고 답답하던 일들이 주위 도움으로 시원스럽게 풀린다. 애써 화장하지 말고 현재 위치를 확고히 다지라. 2, 9, 11월생 금전 손실이 예상되니 먼길 출타를 삼가라. 기, 구, 사 성씨 돼지, 닭띠 부부는 계획한 일 협력해 추진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지배** ▶오늘은 현재 보이는 일에 충실히 하고, 당장 보이지 않는 일은 내일 생각하라. 당장 보이지 않는 일은 내일 생각하라. 4, 5, 9월생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근심으로 마음 쓰지 않는 것이 생활을 즐겁게 만든다.



▶**음양**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행하라.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니 소원 성취할 수 있다. 귀인 도움을 받아 탄탄대로를 달린다. 기, 구, 사 성씨 자녀와 더 많이 대화하고, 행동 또한 주의깊게 관찰하라.



▶**지배** ▶기, 구, 사 성씨 새로운 시작보다는 현 위치에서 안주함이 좋겠다. 동료와 사사로운 언쟁을 피하고 협력을 이뤄야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 7, 9월생 육체 피로가 따르니 신경성이나 소화기 계통 질병을 주의하라.



▶**음양** ▶여기저기 일만 벌여놓으면 예상하지 못한 짐만 지는 신세가 된다. 부수를 벗어나는 것에는 눈 돌리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지금보다 기쁨이 배가하겠다. 투자는 사업이 있다면 재점검하라.



▶**지배** ▶자만하다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순리를 지키라. 기, 구, 구 성씨 심적 동요하지 말고 현상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 1, 6, 8월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 끝까지 믿고 나가면 북쪽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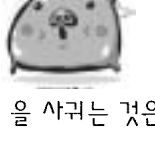
▶**음양** ▶작은 일을 정성껏 이룰 때 큰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결전의 그날이 멀지 않아 온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야말로 사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뱀, 토끼띠가 귀인이다. 어제 실수를 반성해 내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배** ▶매사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 숨 안하며 기다려야 한다. 애정은 삼각관계가 될 수 있으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용기있는 자가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접근해 내 것을 챙기라. 북서쪽이 길하다.



▶**음양** ▶깊이 생각한 언행이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 등 돌리며 적이 되는 일은 사소한 일로 인한 것이니 항상 사랑을 주고 베풀면 몇 배 이득이 내게 돌아온다. 10, 11, 12월생 피란색 계열 옷은 하는 일에 악영향을 미치지 피하라.



▶**지배** ▶새로 시작하는 일이면 모두 순조로우나 지출이 너무 많아 걱정된다. 아직 금전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맡기라. 그래야 재물을 쌓는다. 3월생은 5, 12월생 을 사귀는 것은 좋으나 결혼은 피해야 한다.